

# '최대 300만·70만원' 근로·자녀 장려금, 31일까지 비대면 신청

국세청, 신청 안내문 발송...8월 말 지급  
 '가구원 수·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해야  
 안내문 못 받았다면 전화·온라인서 확인  
 재산 1.4억~2억이면 장려금 절반만 지급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70만원(1인당 최대 금액)의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해당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달이 지난 뒤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는 편이 좋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심사를 서둘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홀벌이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 자녀,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

우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4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은 홀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다.

재산 요건도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정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 손택스(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환급받을 계좌 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본인·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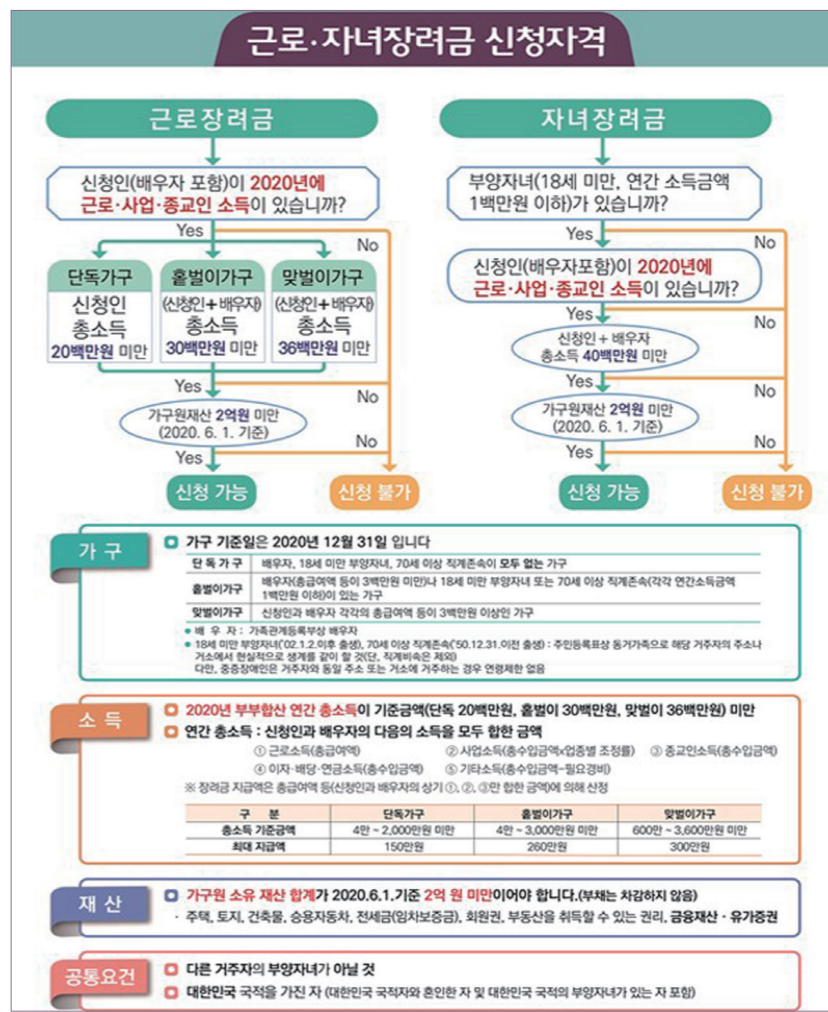
폐업해 사업장을 접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도 된다.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재산·채납 현황에 따라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되고, 채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한다.

김진호 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가정의 달 선물은 건강 가전으로 하세요' 3일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 일렉트로마트에서 모델들이 '건강 가전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안마기, 안마의자를 비롯해 척추의료기, 탈모치료기, 혈압·혈당계 등 건강 가전 할인 행사에 나선다.

## "어린이날 특수 잡아라"...식품업계, 키즈 마케팅 '활발'

홈파티 위한 케이크·HMR 등도 잇따라 출시



식품업계가 어린이날을 겨냥한 키즈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표상품은 어린이들의 취향을 지킬 것 같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 등이다.

어린이를 둔 부모를 비롯해 자녀나 조카, 손주를 위해 제품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지출을 아끼지 않는 '에이 포켓족' 공략은 어린이날 키즈 마케팅의 핵심이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어린이날을 맞아 '흔한남매 과자선물세트' 1탄은 1주일만 한정판됐다. 이후 8월 출시한 '흔한남매 영상제작 놀이 패키지 과자선물세트' 2탄도 조기 소진됐다. 지난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출시한 기획팩도 1주일 만에 다 팔렸다.

크라운제과는 키즈브랜드 플라키키, 넥스 카트라이더와 협업한 백팩과자 종합선물세트 6종을 출시했다. 제품은 플라키키 백팩 2종과 카트라이더 백팩(2종)과 썩(2종)까지 모두 6가지로 선보였다.

어린이 선호도가 높은 스낵, 비스킷, 캔디 등 대표 제품을 골라 담았다. 책가방으로 사용해도 손색 없어 활용도도 높다. 여기에 가격도 4000원부터 2만원까지 6가지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흔한남매 과자선물세트는 롯데 스위트몰,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조카, 손주에 비대면으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가정간편식(HMR) 제품도 선보였다. C2제일제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집에서 즐기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테마로 밀키트 '쿡킷' 신메뉴 4종을 선보였다.

'투움바 스테이크 파스타', '쉬림프 빠네피자', '수비드치킨 화이트', '치킨&새우 칠리탕수' 등이다. 오는 6일까지 신메뉴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쿡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선물할 수 있다.

제과업계도 어린이날을 겨냥해 브레드 이발소, 헬로 카봇, 뽀로로 상어가죽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파리바게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 3종을 출시했다.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를 활용한 '초코랑 초코 케이크',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안녕 난 루피야, 핑크퐁 아기가구를 구현한 '바닷속 투루투루 상어가죽' 등이다.

뚜레쥬르는 인기 작가 '김잠새'와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시즌 스페셜 케이크 '5월의 어느 멋진 날'은 요거트 생크림 2단 케이크에 김잠새 작가의 5월의 자연, 전원, 봄, 꽃 등 아트웍을 더했다.

'펜타스툼X리턴즈', '어몽어스 빅 쇼콜라블', '어몽어스 임포스터 쇼콜라' 케이크 등 어린이날 분위기를 극대화할 케이크도 선보였다.

## 유통가는 '페이 전쟁'...간편결제 도입 확산

자사페이 도입 확산...GS·현대백화점·이랜드 준비

최근 유통업계가 자체페이 도입을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시장이 커지며 고객 록인(Lock-in) 효과를 노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자체페이를 통해 확보된 빅데이터를 수집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과 현대백화점그룹, 이랜드그룹은 자체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GS리테일은 올해 7월 GS홈쇼핑과 합병을 앞두고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간편결제서비스 'GS페이'를 개발 중이다. GS페이는 GS25·더프레시·랄라블라와 GS홈쇼핑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GS칼텍스 등 GS그룹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지난 1월 페이먼트 플랫폼 관련 제휴를 위해 7개사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과 KG이니시스를 제휴사로 선정했다. GS리테일과 KB금융그룹은 구매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논

의·협력하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초 'H.Point Pay'라는 이름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룹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현대식품관투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리뷰 등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그룹도 오는 6월 'E페이'라는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자체페이는 유통업계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엘페이), 신세계(SS페이), 쿠팡(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등은 이미 각자 자체페이를 운영 중이다.

김민정기자

## 편의점,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제품 판매

전국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용항원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GS25는 오는 7일부터 휴마시스에서 만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 CU 역시 이르면 7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의료기기 판매 인허가가 있는 4000여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향후 취급 점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GS25는 지방을 중심으로 2000여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CU는 우선 직영점 위주로 판매를 시작해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전국 4000여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밀접한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만큼의 바이러스 채취가 어려워 정확성에서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제품 판매



설명했다.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증상이 발생했을 때도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 "가족·연인과 차박 떠나요"...홈플러스, 캠핑카 무료 대여

10명 선정해 레이 캠핑카 '레비' 6월 중 2박3일 제공



홈플러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연인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차박에 최적화된 미니 캠핑카를 무료로 빌려준다.

홈플러스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중 마이홈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홈플러스 오토클럽'을 관심클럽으로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참여 고객 중 10명을 선정해 레이 캠핑카 '레비' 2박3일 간 무료 대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차량은 캠핑카 개발·렌탈기업 '다운티엔티'에서 출시된 기아 '레이' 기반의 2인승 캠핑카 '레비'로 2층 팝업텐트가 기본 장착돼있다. 접이식 짐상대, 변형식 수전 등이 장착돼 소규모 가족이나 연인끼리의 차박에 최적화된 미니 캠핑카다.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6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함께 떠나고 싶은 사람과의 사연을 누르고 어디로, 왜 떠나고 싶은지에 대한 스토리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응모할 때는 이벤트 당첨 시 차량 픽업과 반납을 원하는 장소(부천상동, 대구, 광주광역시 중 태백)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마이홈플러스 앱 이벤트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